

무형 문화자원의 관광 정책적 활용을 위한 경제적 가치평가: 아리랑을 중심으로*

안태홍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김광오
신성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Economic Value Evaluation for applying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to Tourism Policy: Focusing on ‘Arirang’

Tae-Hong, Ahn^a, Kwang Oh Kim^b

^a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Sang Myung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Hotel Culinary Art, Shin Sung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3, Revised 15 December 2023, Accepted 22 December 2023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valid and appropriate method for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Building upon the concepts explored in many studies on the total value regulation of public goods or environmental goods, which are non-market value commodities, with a focus on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rirang, this study aims to formulate a new economic value concept for cultural resources that contributes to the overall economic total value, including non-use value. Based on this foundation, the study aim to identify and apply the most efficient model(CVM) among economic value measurement methods, as suggested by Tietenberg (2003).

Findings - This involves estimating economic value through consumer behavior, encompassing the use or experience of cultural resources, as well as utilizing statements to estimate economic methods through consumer surveys. Only by presenting individual resource economic values of cultural resources in objective figures can a foundation be established for creating budget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promote projects and polic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ppropriate decisions can then be made by comparing these values with the expected costs in the management and planning process.

Keywords: Economic Value Evaluation, Arira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CVM

JEL Classifications: C12, C83, D40, L15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173)

^a First Author, E-mail: mdteon@naver.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fivelite@shinsung.ac.kr

© 2023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문화자원의 경제 가치를 측정하려면 성립된 시장에서의 측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Loomis & Walsh (1997) 에 따르면 문화 자원의 시장 성립은 어렵다 주장했다. 그러나 김사현(2008)에 따르면 문화자원에 어떠한 형태로든 돈을 지불하는 사용자가 소비 과정에서 체험하는 경제적 가치나 효용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에서는 경제학자들은 문화 자원의 형태나 활용이 달라지면서 유발되는 사용자나 잠재 사용자의 수요와 선호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통해 그 자원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추정해왔다.

더구나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서 문화자원은 기존에 합리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고 보존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선 유지관리 책임에 따른 예산집행 때문에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기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된 화폐가치로 교환된 일부 문화 자산을 제외하고 무형의 문화자산은 취득가액이나 공정가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 측정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기은주 외 4인 2008). 이에 무형문화자산의 개별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해야만 무형 문화재 복원·유지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조직 편성을 만들 수 있는 근거로서 관리와 기획 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비용과의 그 가치 크기를 계산해 합당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선 비시장적 가치개념의 재화인 공공재 또는 환경재의 총가치 규정에 대한 연구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경제적 총가치를 이루고 있는 무형문화자산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 개념을 형성하여 이를 측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무형 문화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아리랑과 같은 장소이동성이 용이한 무형문화자원을 평가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2008년 승례문 화재의 예에서와 같이 유형 문화재는 가시적인 피해를 인지하여 복원할 수 있었으나 무형 문화재의 경우는 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서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관리와 소멸 위기 시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 분야 중 특히 연구가 부족한 무형 문화재 가치 평가 분야에서 객관적 가치 평가모델의 정립을 위해 대표적 무형 자원인 아리랑(스토리, 공연예술, 음악의 콘텐츠)을 평가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적 특성과 정체성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다루어지지 않고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를 통해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 중 Tietenberg (2003)이 주장하는, 문화자원을 사용하거나 체험하는 소비자 행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현시선호기법과 진술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설문을 통해 경제적 방법을 추정하는 진술선호기법 중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찾아 적용하고자 하며 무형 문화자원의 개별 매력도를 객관적 수치로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무형 문화재 아리랑

국가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보존·전승되는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자원이라 말할 수 있는데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는 원형규범에 의해 무형 문화 자원은 원형보존 정책 시행을 거쳐 2016년 3월 시행된 무형문화재법에 의해 원형규범의 경직성을 탈피한 전형규범을 도입하였다(이재필, 2016). 이러한 문화재에 관한 원형규범 문제는 무형문화재가 제도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법적 지위나

규범의 형태에 관한 연구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무엇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고 아리랑도 또한 무형문화재로서의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라는 보존의 지침에 따라 유지되며 스토리, 공연예술, 음악 콘텐츠로서의 무형문화자원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무형 문화재에 대한 고찰은 중요무형 문화재 지정 이후의 변화의 특징 및 보존전승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이종숙, 2016) 등 주로 법 제도에 따른 무형 문화 자원의 변화나 특징을 다루고 있다. 아리랑도 또한 무형문화재로서의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라는 보존의 지침에 따라 유지되며 스토리, 공연예술, 음악 콘텐츠로 형태를 변화하면서도 무형문화자원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주영(2021)은 아리랑에 대한 무형 문화자원으로서의 연구로 주로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자원으로서 아리랑의 '지역 고유성', '민족대표성', '예술 전승성'을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특질 3대 요소로 규명하였고, 권갑하 외 2인(2014) 지역 브랜딩 전략의 요인 분석을 통해 아리랑의 글로벌 콘텐츠화의 방안을 모색한 연구 하였다.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되었고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되었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아리랑은 나운규의 아리랑이 그랬듯 대한민국의 정서의 아이콘이자 한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무형의 문화재를 뛰어 넘는 가치를 보유한 존재 이다. 그러나 아리랑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사료나 객관적인 증명으로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류영호 2019)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 산재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는 무형의 곡조는 약 60여 종, 3,600여 곡이 넘어 가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국의 정서를 상징하는 민요인 아리랑은 역사적 속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한국 일반 민중이 구전을 통한 공동 전승과 승계의 노력으로 창조한 무형의 정서적 문화재로 자리매김한 노래이다. 단순한 구절로서 '아리랑'과, 아라리오'라는 반복되는 음, 구절과 지방에 따라 저마다의 사연이 깃든 가사로 전승된 두 줄의 가사로 만들어져 있다. 가슴 속 깊이 스며드는 보편성과 다채로운 주제를 담고 있고, 너무나도 단순한 곡조와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여 부르기가 쉽고, 여러 공연과 음악 장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즉흥적인 편곡도 가능 하다.(유네스코와 유산 2022), 그러므로, 아리랑은 영화·뮤지컬·드라마·춤·문학 등 공연예술과 여러 다양한 예술 분야와 방송매체에서 대중적 주제이며 동인으로 애용됐다.

아리랑은 서울에서 19세기 중반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던 공연예술의 장을 통해 직업 음악인들에 의해 불리는 민요풍의 노래화 되었다. 이 후 일제강점기에 아리랑은 음반과 방송, 영화를 통해 대중화 되었고 해외로도 알려 지게 되었다. 이 당시 아리랑은 문예 예술 공연 종합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 활용되면서 문화 예술계 전반에 문화 예술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었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대성공 이후 주제가로 쓰였던 이리랑 노래가 1930년을 거치며 전국적 유명세를 획득했고 문화·사회·예술측면에서 장르 확산이 크게 되었다. 이 영화에 사용된 아리랑은 이때부터 중심이 되는 의미의 아리랑으로서 기능을 하며 민족의 노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아리랑의 문화 전개에 있어 아리랑의 본질을 재현하는 방향으로서 그 속에 스며있는 상실, 박탈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애원성, 어려운 민중의 삶을 표현하고 견디게 하는 문화적 기능, 그리고 아리랑은 신명과 흥의 회복을 나타내고, 의미와 정서를 추체험하는 측면에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강조여 국가브랜드로서 강화되가는 경향이 있고 마태 수난곡과 비견할 민족적 수난의 극복의지와 서사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아리랑은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을 뭉치게 하는 구심점으로 다수 영화와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축제와 행사에 이용되고 있다 (강동학2012).

아리랑은 자체가 가진 상징성과 가치에 대한 이견이 없음에도 정부차원의 보존 노력이 부족한 학계와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세대와 지역의 초원성과 보편성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 아리랑 종목은 그동안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문화재청은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향유되고 있어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7월 19일 시행했다. 이로서 '아리랑', '씨름',

‘김치 담그기’, ‘해녀’, ‘막걸리 빚기’처럼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전승돼 특정한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이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원할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문화재 예산 정책은 무형문화재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고 있어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시장에서 형성된 화폐가치로 교환된 일부 문화재 자산을 제외하고 ‘아리랑’ 같은 무형의 문화자산은 시장가격이나 적합한 문화 시장에서의 지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2. 무형적 형태 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세계적으로 산업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전환하면서 인문적 가치에 근간을 두는 소비적인 문화자본주의 즉, 경제의 축이 산업에서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대중문화의 시대에는 자본과 부 창출의 거대한 원동력인 문화자원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문화자원 개발 추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태종 2007). 코로나 사태 이후, 장소를 기반으로 한 관광사업의 쇠락 가능성에 대체적 방안으로서 현대 관광자원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자원 중 무형문화자원은 장소이동성이 용이하고 IT 기술과의 결합으로 언컨택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가지는 자원으로서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화자원은 시장성립이 대단히 어렵고 특히나 스토리, 예술, 음악과 같은 무형의 형태를 가진 문화자원일 경우 더욱 시장에서의 가치 측정이 어렵다. 그러므로 문화 자원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치를 지불하는 사용자가 특정 문화자원에서 인식하는 경제적 가치나 이들 자원을 누리고 소비하는 경로에서 경험하는 효용(utility)의 측정이 쉽지 않다 (김사현 2008).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무형문화재법에 나타난 무형문화재의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과 원형을 유지한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무형문화재는 형태적 특성상 유형 문화재와 같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하고 가치를 측정하여 미래세대로 전승한다는 것이 특히 어렵다 (이재필 2016). 특히 대표 무형 문화재로서 온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의 주요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129호로 지정된 아리랑은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와같이 아리랑은 전 역사적이고 전지역적인 기반과 함께 전국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 동아리, 단체 등)에 의해 전승 유래되어 왔으며 전승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아리랑의 무형 문화유산으로써 우리의 귀한 전통예술임을 인지하고 이것의 가치를 연구하는데 있어 경제적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문화정책적인 보존과 유지계승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하겠다.

문화자원의 경제 가치를 측정하려면 성립된 시장에서의 측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Loomis & Walsh (1997) 에 따르면 문화 자원의 시장 성립은 어렵다 주장했다. 그러나 김사현(2008)에 따르면 문화자원에 어떠한 형태로든 돈을 지불하는 사용자가 소비 과정에서 체험하는 경제적 가치나 효용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에서는 경제학자들은 문화 자원의 형태나 활용이 달라지면서 유발되는 사용자나 잠재 사용자의 수요와 선호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자원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왔다.

유용한 문화자원과 같은 유-무형적 형태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이 기법은 Tietenberg (2003) 에 따르면 크게 사용하거나 향유하는 소비자 행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현시선호기법과 진술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설문을 통해 경제적 방법을 추정하는 진술선호기법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로부터 간접적 측정 방식인 현시 선호 기법과 함께 직접 측정방식인 진술선호기법에의 적용을 바탕으로 문화자원에 타당하고 적합한 가치 측정 방법을 도출 하고자 한다. 특히 무형 문화재법주에 알맞은 방법을 응용하여 무형문화자원가치를 측정하는 적합한 방법을 탐색한다.

III. 연구방법론

1. 현시선호 가치평가방법 VS 진술선호 가치평가방법

무형문화자원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선호 이론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는데 측정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조사 하여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편익을 얻었다는 추정 하에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여행 비용법 (TCM: travel cost method) 과 헤도닉 가격법 (HPM:hedonic) 등이 있는데 이는 주로 현시 선호법의 범주에 속한다 (Lyu 2017).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응답자들에게 설문을 통하여 가상적인 시장상황을 제시하고 가상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 금액을 직접 질문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 후 이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를 분석하여 가치 평가를 하는 진술 선호법이 있다. 무형 문화 자원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 연구가 진술선호 이론에 근거해 가치평가연구 조사를 해왔는데(류영호2019) 대표적으로 조건부 가치추정(CVM)과 선택실험법 (CE: choice experiment) 등이 있다.

무형문화재를 향유하고 체험 하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추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통적으로 비시장재의 비이용가치를 평가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현시선호 범주의 가치평가방법은 무형문화재인 아리랑의 측정으로는 적합하지는 않다. 비시장재의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 가치까지 추정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진술선호이론에 기초한 가치평가방법이 좀 더 무형문화재의 측정방법에 적합하다.

진술선호기법은 보통 응답자에게 가상적인 시장상황을 제시 후 지불할 금액을 묻거나 여러 대안을 제시 한 후 응답자의 선호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비시장 가치가 내포된 경제적 총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류성욱2014). 그래서 많은 선행연구(한상현 2013, Salazar& Marques 2005, Freeman 2003, Davis 1963)들이 진술선호 기법인 조건부가치 측정법(CVM)과 진술선호 선택법(SPCM)을 통해 관광분야 자원의 가치를 측정해 왔다. 특히 조건부가치 측정 기법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0개가 넘는 정도로 많은 저명 논문에서 사용된 특히 타당성과 결과치의 신뢰도를 인정받고 특히 공식적으로 비사용 가치 추정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진술선호이론 범주 중 조건부가치 추정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하여 실제 시장을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이 조건 하에서 응답자가 어떠한 지불의사금액을 선택할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한 후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조건부가치 추정법은 공익성이 큰 재화나 서비스 (환경, 문화 유적지, 동식물자원, 예술 등) 가치평가에 많이 활용되어 검증 되 왔고,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 되어 다른 분야로 적용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환경뿐만 아니라 유적지,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조건부가치 추정 평가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응답자의 응답을 이끌어 내는데 그 범주로는 양분선택형 질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 지불카드방법, 개방형 질문 등이 있다. 조건부가치 측정법(CVM)은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지불의사 금액을 사전조사 후 가상적 상황의 설문지를 작성해야한다. 응답자의 지불의사와 수요곡선을 이로부터 도출해 내며 소비자 잉여의 면적을 구해 자원가치를 추정한다.

진술선호 선택법(SPCM)은 비시장 재화의 가치뿐 아니라 각종 시장의 재화 속성과 수준에 따른 총경제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 측정법(CVM)의 확장판인 진술선호 선택법(SPCM)은 응답자의 응답속성의 수가 늘어나 인지적 부담이 되고 조건부 로짓과 혼합형 로짓같은 모수추정이 어려우며 비용도 증가하는 점에서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활용하였다(김사현, 김규효,& 박세종 2016). 가치 평가 속성은 한계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금액요인으로서 입장료선정을 포함 하는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조건부가치 측정법(CVM)은 실제 소비 행동과 지출액을 기초로 대상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현시선호 이론과 다르게 가상적인 시장상황에 맞추어 자원 사용자의 수요나 지불의사의 변화를 기초로 한다(류성욱 2014). 따라서 진술선호기법 범주 중 조건부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은 자원의 실질적 이용과 관련이 멀기 때문에 조사 대상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사용가치가 사용가치 보다 많은 순수공공재 특성이 많아 CVM 적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문화유적지(Salazar & Marques, 2005), 축제(Anderson et al., 2012), 국립공원(Willis & Garrod, 1993) 등 다양한 자원에 활용이 가능한 장점 덕분에 국내 무형 문화재 중 공연 음악 스토리텔링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아리랑’을 조건부가치 측정법(CVM)의 사용을 통해 연구대상 자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을 시도하였다.

2. 자료 및 연구 설계

설문조사를 위해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고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한다. 가상시장의 설정을 위한 설문지를 디자인하여 무형문화자원 대상을 정의해주고 지불수단과 양분 선택형 지불의사 유도 방법을 선택한 설문지를 7명의 잠재적 응답자를 통해 검증 수정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아리랑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체험 유무에 대한 사전 문항, 지불의사에 대한 CV문항과 기타 인구 통계적 질문 등으로 구성 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온라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본 조사에서는 0의 지불의사자를 고려하고 전국 600명을 조사 하였다. 조사는 통계청 가구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하였다. 아리랑의 음악, 예술공연, 스토리 콘텐츠로서의 지불의사금액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설문은 순서와 길이에 따른 피로도도 신경 쓰며 작성하였다. 기본적인 인구사회적 항목을 서두에 배치하고 응답자의 자원의 인식정도를 파악한 후 지불의사를 질문한다. 학력과 수입 등의 질문을 말미에 배치해 것도 설문 초반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심리적인 편안함을 위한 고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금액은 아리랑의 공연 뮤지컬 재화와 모바일 TV에서의 콘텐츠로서 사용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양분선택형 CVM을 이용하여 지불의사를 추정하는데 이용하였다.

Table 1. 아리랑 CV 설문 구성

	구분	주요내용
질문	인식 조사	아리랑에 대한 경험과 인식
	편의의 설명	아리랑의 성격, 가치, 활용 등
	지불조건	관람료 (또는 구독비용)
	1차제시금액범위	40,000원~140,000원/1,540원~11,000원
	2차제시금액범위	30,000원 ~ 160,000원 / 1,700원 ~ 14,000원
	응답의 이유	“예”응답 이유, “아니오” 응답 이유
	인구사회적 항목	동거인 수, 학력, 직업, 소득

본 연구 설문지는 아리랑을 뮤지컬이나 공연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을 가상해, 아리랑의 국내 공연 예술 분야, 콘서트와 뮤지컬 등 공연료 가격으로 2019년~2022년 인기 콘서트 평균 최고가격과 국내 대극장 뮤지컬 표 가격을 범주로 잡았다. 사전조사의 개방형으로 도출된 지불의사금액에서 상위와 하위 15%를 제외한 상한과 하한이 170,000원과 20,000원 으로 측정되었다. 이후 전체 지불의사금액을 순위별로 나열한 후 제시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제시금액은 VIP 140,000원 R석 120,000원 중극장 80,000원 소극장 R석 60,000원, S석 40,000원 5가지다. 그리고 영화화나 스토리 콘텐츠화하여 코로나가 불식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체험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블과 모바일 TV 서비스인 인 B TV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과 케이블서비스 요금으로도 개방형으로 도출된 지불의사금액에서 상위와 하위 15%를 제외한 상한과 하한이 13,000원과 1,000원으로 제시금액은 7일간 대여 가격인 11,000원, 7,700원, 5,500원, 2,750원, 1,540원 5개의 가격대로 구분 하여 질문하였다.

IV. 분석 결과

1. 분석 및 가치 추정

설문결과는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자들의 ‘예/아니오’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CV 문항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아리랑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아리랑문화를 체험 하려는 인식에서는 ‘아리랑의 역사적 상징성’, ‘아리랑의 문화적 소통’, ‘민족적 공감과 단결’ 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족 정체성’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아리랑문화를 체험 하려는 인식

인지	응답자(복수)	비율(%)
아리랑의 역사적 상징성	594	36
아리랑의 문화적 소통	346	20.9
민족적 공감과 단결	477	28.9
민족 정체성	233	14.1
합계	1650	100

각 구간별 1차 제시금액에 대한 ‘수용비율’을 확인하여 설문지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1차 제시 금액이 낮을수록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제시금액이 높다고 반드시 찬성률이 낮아지지는 않았다. 결과를 가지고 독립변수들만을 넣어 분석한 아리랑 지불의사모형 추정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제시금액의 B값이 음(-)의 사인값인 것은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대다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가격과 수요의 이론을 따른다. 아리랑은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인지여부가 높을수록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지불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건부가치평가법(CVM)에 의한 가치추정을 위해 이중 양분선택법을 사용하여 아리랑의 뮤지컬이나 공연컨텐츠로 제작시 지불의사액은 45,337원으로, 케이블TV와 OTT 구독 서비스 요금으로는 5,750원으로 산출되었다. 일반적으로 WTP추정결과를 토대로 대상국가 전체가구 수 등을 곱하여 CVM을 활용한 비시장가치를 추정한다. 그러나 본 조사는 아리랑 공연 관람객과 TV, OTT컨텐츠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WTP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박찬열, 송화성 2016). 또한 설문지에서 공연입장료와 구독 관람료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의 WPT 추정 결과는 공연장 방문객과 구독 관람자 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 관람객과 구독 관람객 수를 곱한 아리랑공연과 케이블TV, OTT 컨텐츠의 총 편익은 1,064,190,640,615원 이고 아리랑 TV, OTT 컨텐츠의 총 편익은 171,827,230,000원과 65,377,500,000원 으로 추정 된다.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아리랑의 TV, OTT 컨텐츠 보다 뮤지컬이나 공연에 대해 훨씬 높은 지불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리랑을 문화 상품화시 직접 공연을 체험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는 향후 다른 무형문화자산을 문화 상품화시 효율성 있게 가치평가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Table 3. 아리랑 지불의사모형 추정결과 ($p < 0.1$, $**p < 0.01$)

구분	B	S.E	유의확률
제시금액(ln)	-.039	.006	.000**
성별	.049	.159	.723
연령	-.075	.067	.273
소득수준	.029	.033	.327
교육수준	-.121	.079	.198
인지여부	.671	.445	.097*
참여의도	.626	.254	.009*

Table 4. WTP 금액과 가치추정

구분		아리랑 공연	아리랑 TV, OTT 콘텐츠
평균		45,337원/ 1회	5,750원/7일 대여
최대값		160,000	30,000원
최소값		14,000	1,700원
표준편차		9,950	9,912
왜도(Skewness)		1.23	1.24
첨도(Kurtosis)		-0.07	-0.07
가구수 기준		23,472,895가구	
가치 추정	WTP	1,064,190,640,615원	134,969,146,250원
	관람객수 기준	3,790,000	11,370,000
	WTP	171,827,230,000원	65,377,500,000원

산출한 지불의사액에 기초하여 아리랑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방문객 연간 약 1702억 원, 구독 관람객 수에 근거한 구독료 수입의 관점에서는 650억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아리랑에 대한 재화 유형별 인식도 및 이용의사에 대한 파악으로 아리랑의 뮤지컬, 공연, 모바일 TV 콘텐츠화 되어 문화 상품으로서 가치화되었을 때, 아리랑 문화상품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인 지역 간 아리랑 종류에 따른 WTP 차이(류영호 2018)와 차별화를 가졌다. 특히 현시대에 맞게 '아리랑 무형문화재'가 문화 상품화 되었을 때를 가상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를 추정하고자 한 것은 아리랑을 문화상품적 컨텍스트를 이용한 고유의 문형 문화재 상품화의 활성화에 기초자료 및 이론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1. 연구의 한계점

연구의 한계점으로 이 연구에서 측정법은 무형 문화재를 다양한 속성을 가진 재화로 간주하면 그 자원의 가치를 추정할 시 명백한 한계가 나타난다. 이는 조건부 가치 추정이 하나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류성욱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무형 문화자원으로서의 아리랑이 음악, 공연, 스토리콘텐츠, 영화화 등 다양한 무형문화 자원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전형규범을 따른 형태마다의 특성이 경제적 가치 평가가 다른가? 하는 검증 과정을 거쳐 보다 유효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조건부 가치 평가법(CVM)과의 비교로서의 진출선택법(SPCM)의 모형 추정을 하는 연구 설계가 들어가는 연구도

의미 있다. 진출 선택법이 로짓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수추정이 쉽지 않고 다소 복잡하고 연구 설계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함에도(Louviere, 2001, Bateman et al., 2002) 재화나 자원 이용자의 실제 의사 선택 상황과 과정을 가까운 조건과 상황을 추정하기 때문에 조건부 가치추정법에서 얻어낼 수 없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향후 연구에서 필요하다.

2. 연구결과와 활용도

연구의 성과를 통해 아리랑의 무형문화자원의 트렌드에 맞는 유형별 개별 시장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 할 수 있는 수치를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치화 계량화 해야만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조직 편성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관리와 기획 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예산비용과의 정책적 효과를 비교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아리랑의 무형문화자원 형태 중 장소이동성이 높은 모바일 TV와 케이블 콘텐츠로서의 문화컨텐츠 상품으로서 자원 활용 가치를 순위로 유형별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자원의 관리와 복원, 문화관광 산업에서의 활용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하여 그 가치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준다.

기존의 무형문화자원의 시장가치의 평가 등 경제적 평가부분에서의 연구는 선행 연구가 드물어 경제 가치 평가 모델 설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아리랑을 가치평가로 다룬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류영호 2019). 이는 출생 거주지에 의해 밀양 아리랑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리랑이라는 무형의 문화자원의 유형별 기본적인 가치 평가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리랑이라는 무형 문화 자원을 어떻게 상품유형별로 정책적 활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경제적 가치 평가가 쉽게 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활용방안 으로는 첫째, 아리랑의 무형 문화유산의 상품유형별 특성만 파악 된다면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 할 수 있고 이러한 아리랑과 같은 무형문화자원의 상품형태별 계량화를 통하여 향후 무형문화자원의 범주를 분류하여 관리할 때 무형문화자원 자산을 수치화된 기준근거를 활용하여 관리 할 수 있고 무형문화자원의 가치를 비교분석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리랑이라는 무형 문화자원을 영화나 스토리 콘텐츠 등 모바일과 TV 매체 상품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거주공간에서 시작되는 소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기 해 볼 수 있다. 장소이동이 용이한 아리랑이라는 무형문화재의 스토리 콘텐츠 등의 상품가치가 장소에 기반을 두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영 외 2인 2018). 이렇게 문화자원은 세계인이 공감 하는 콘텐츠로만 만들어 진다면 되어 Netflix 의해 실시간으로 세계가 경험 할 수 있다.

기대효과로서 무형문화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첫째, 무형문화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무재표 상 자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무형문화자원의 유형별 지불의사금액은 다르므로, 유형별 가치평가의 차이유무를 검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무형문화 자원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유형별 최적 로짓모형을 선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가치추정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요인을 확인해내고, 어느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가치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아리랑 무형문화자원의 형태별 상품에 대한 활용과 관리 보존의 필요성을 계량화된 지표를 통하여 각 관리 주체들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 기획 활용 할 수 있다.

3. 연구의 공헌도와 시사점

아리랑을 통한 무형문화자원의 가치평가 연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무형 문화 유산을 활용한 축제와 공연 등 문화 사업 시행 시, 지자체가 무형 문화자원을 재무재표 상의 자산가치로 표기할 수 있고 예산으로서 관리 할 수 있게 된 점은 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법'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실무적으

로 매우 유용하다할 수 있겠다. 또한 아리랑의 무형문화자원의 가치평가를 통해 아리랑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스토리, 공연예술, 음악 콘텐츠 형태뿐만 아니라, 영화와 연극, 뮤지컬, 판소리 버전, 퓨전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무형 문화자원으로서의 다양한 수준의 개별 가치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는 어떤 무형 문화재의 형태가 가장 가치가 높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모델로의 확장도 가능할 수 있겠다.

특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법 개정으로 아리랑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해야 아리랑과 연관된 공연 예술 보존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조직 편성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보존을 위해 예상되는 비용과의 그 가치를 위한 예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승자 지원, 아리랑 박물관 설립, 자료데이터 구축, 프로그램 확산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 되어 왔는데, 정부예산의 투입을 수치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객관적인 수치 가격으로 제시하는 이 연구는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아리랑의 무형문화자원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스토리와 역사적 공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족적 상징성으로서의 아리랑 가치가 가장 주요한 특성으로 보인다. 어떻게 각 시대에 맞는 그리고 각 지역상황에 맞는 무형문화재의 형태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수요를 창출하고 대중이 체험하는 시장 경제적 가치로서 더욱 다양하게 아리랑이라는 무형문화자원 가치가 보존 되고 향유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리랑은 한국민족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질적 문화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민족적 동질성 측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아리랑의 문화유산을 시대적 고유문화와 현시대 사람들의 공연 놀이문화 등으로서 K 한류의 근본으로서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유산은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와 남과 북의 분단 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고유의 동질적 문화와 통합의 상징적 도구로서의 아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과 애국애족이 사라지는 지금 세대에 세대별 계층 간의 갈등에서 민족적 공존과 동질성 회복, 문화적 변영의 역사를 관통하려는 한국은 지속 가능한 역사적 철학에 앞서 간단하고도 명료한 리듬과 소절이 가지고 있는 ‘아리랑’과 같은 범주의 상징적 무형문화재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References

- 강동학(2012), “아리랑의 문화형질, 그리고 아리랑의 공적 관리와 사업의 문제”, *비교한국학*, 20(2), 9-41.
- 권갑하, 김영만, 김용범(2014), “아리랑의 글로벌 콘텐츠화를 위한 지역문화 브랜드 전략 연구”, *문화정책논총*, 28(2), 104-128.
- 기은주·이경아·한승현·이혜원·윤휘진(2008), “문화재의 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논의”, *이화행정*14, 82-106.
- 김광백(1994), “대한황실 복원 꿈꾼다.” *한국논단*, 12월호.
- 김나영·김성민·맹희영(2017). “행정박물 3D정보의 실감형 색채 및 질감 표현기술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8(3), 13-21.
- 김동영, 김진병, 이중섭(2018), “지방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미래정책 아젠다 발굴”, *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11.
- 김덕영(2012), “문화과학 및 사회과학의 논리와 방법론”, *김* 61~85.
- 김사현(2008), “관광경제학(3판)”, *백산출판사*.
- 김사현, 김규효, & 박세중(2016), “관광경제학”, *서울: 백산출판사*.
- 김세기(2013), “대가가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신라문화*, 41, 57-95.
- 김연화(2016), “대한제국 황실표상으로서의 이화문이 지닌 융복합적 존재형식의 정체성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4, 79-88.
- 김용범(2009), “무형문화자원의 문화적 활용과 상품화 전략”, *문화정책논총*, 21, 209 - 225.
- 김종수(2009), “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방안”, *민속학연구* 24, 71-94.
- 김종혁(2003),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새 방법론으로서의 전자문화지도”, *국학연구*, 12, 263-290.

- 김준혁(2014), “조선왕실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수원화성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인문콘텐츠*, 34, 213-237.
- 김지은·박은수(2016), “문화유산 광희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공간 활성화 콘텐츠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3, 95-109.
- 김창규(2006), “기방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 *한양법학*, 19, 167-183.
- 김태현·박숙진(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정책의 역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403-412.
- 권명화·백철우(2008), “R&D정책의 이상과 실천: R&D효율성 및 영향요인에 대한 국가간 비교”, *동계학술발표논문집*, 359-390.
- 류성욱(2014), “관광 및 여가 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법에 대한 비교 -진술선호 선택법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6(2), 105 - 125
- 류영호(2019), “무형문화유산 가치 평가를 위한 CVM 적용 모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거리’에 의한 지역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 박성수(1998),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자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관광정보연구*, 2.
- 박찬열·송화성(2016), “CVM을 활용한 역사관광자원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2), 255-271.
- 백현순·유지영(2016), “스토리맵(storyMap) 형식의 한국무형문화재 춤 전자테마지도 구축 제안”, *한국무용연구*, 34(3), 67-87.
- 신평(2014), “경주 문화재정책의 검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연구”, *법학논고*, 45, 151-182.
- 염동훈(2003), “문화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 1”. *서울, 일신사*.
- 유기준(1997), “공주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인지도 분석”, *여행학연구*, 6, 179-200.
- 이재필(2016),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문화재*, 49(1), 146-165
- 이종숙(2016), “〈진주검무〉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의 변화에 관한 소고”, *문화재*, 49(1), 14-21
- 이주영(2021),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역할 고찰 : 공주아리랑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2), 189-203.
- 이창근(2015).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방안: 궁궐·종묘의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35, 207-232.
- 이태종 (2009),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개발 정책방안 : 라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35 - 261.
- 한상우·이상길·조상희·최현섭(2007), “문화재 발굴현장의 역사체험 및 관광화 방안”,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10, 1-88.
- 한상현(2013), “경주유적지 역사경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1(34), 3-22
- 황희정·박창환·이훈(2015), “문화재 활용, 진정성의 구현이냐, 훼손인가”, *관광연구논총*, 27(4), 3-26.
- 허용호(2006), “전자문화지도 연구에서 민속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비교민속학*, 31, 467-508.
- Andersson, T. D., J. Armbrecht, and E. Lundberg. (2012), “Estimating use and non-use values of a music festival”,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12(3), 215-231.
- Bateman, I. J., Carson, R. T., B. Day, M. Hanemann, N. Hanley, T. Hett, M. Jones-Lee, Loomes, G., Mourato, S., Özdemiroğlu, E., Pearce, D. W., Sugden, R., & Swanson, J.(2002), “Economic valuation with stated preference techniques: A manual”,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 Davis, R. K.(1963), “Recreation planning as an economic problem”, *Natural Resources Journal*, 3(3), 239-249.
- Freeman, A. M.(2003), “Economic valuation: What and why”, In P. A. Champ, K. J. Boyle, & T. C. Brown (Eds.), *A primer on nonmarket valuation*, *Dordrecht*, the Netherland: Kluwer Academic Publishers
- Loomis, J.B., and R.G. Walsh, (1997), “Recreation economic decisions: Comparing benefits and costs”,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 Louviere, J. J.(2001), “Choice experiment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issues”, In J.Bennett & R. Blamey (Eds.), *The choice modeling approach to environmental valuation*,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Lyu, S. O. (2017), “Which accessible travel products are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ing to pay more? A choice experiment”, *Tourism Management*, 59, 404-412.

- Salazar, D. S., and M. J. Marques (2005), "Valuing cultural heritage: The social benefits of restoring and old Arab tower",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6(1), 69-77.
- Tietenberg, Thomas H.(2003),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Economics", *Pearson Education*, Addison Wesley.
- Willis, K. G. and G. D. Garrod (1993), "Valuing landscape: A contingent valuation approach",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37(1), 1-22.
- Weber, Max.(196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Bedminster Press*, New York.